

제 4장 금속활자

< 고려 금속활자 관련 자료; 2013.09.26 >

-고려

A) '본조는 건국한 이래로 예제를 손익함이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한번 뿐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병되게 여긴지 오래되었습니다. 인종 대에 와서 비로소 평장사 崔允儀 등 17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고급의 서로 다른 예문을 모두 참작하여 절충하고 50권의 책을 만들고 그것을 '상정예문'이라 명명하였다. 그것이 세상에 행해진 뒤에는 예가 제자리에 귀착되어 사람이 의혹되지 않았다. ... 이때에 와서 나는 선공의 뜻을 더욱 알게 되었고, 또 그 책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그래서 결국 鑄字를 사용 28본을 인출하여 諸司에 나누어 보내 간수하게 하니, 모든 유사들은 일실되지 않게 삼가 전하여 나의 통절한 뜻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월일에 모는 발문을 쓴다.' (『동국이상국집』 권25, 新序詳定禮文跋尾-代晉陽公行)

B) 『증도가』는 선문에서 가장 긴요한 책이다. 참선하는 후학들이 모두 이 책에 의하여 승당에 들어 깊은 이치를 깨닫고 있는데, 그 전래가 끊겨 유통되지 않아 공인을 모집하여 주자본을 거듭 새겨 오래 전래될 수 있게 되었다. 고려 고종 26년 기해(1239) 9월 상순 중서령 진양공 최우 삼가 기록한다.(『남명천화상송증도가』)

C) 宣光七年(우왕 3, 1377) 丁巳七月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직지심체요절』)

-조선(2013.9.25)

A) 1403년 2월 13일 조선 태종 13년 이른 봄. 태종은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널리 책을 읽어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바로 잡아야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바다 건너 있어 중국 서적이 잘 들어오지 않을 분더러, 목판은 갈라지기 쉽고 만들기도 어려워서 그것으로는 모든 책들을 다 인쇄할 수 없다. 이제 구리로 글자로 만들어서 책을 얻을 때마다 그 책을 인쇄해 널리 퍼면 그 이로움은 참으로 무한할 것이다 (『양촌집』 주자발).

B) 새로 鑄字所를 설치하였다. 임금이 우리나라에 書籍이 매우 적어서 儒生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하여, 명하여 주자소를 설치하고 藝文館大提學 李稷·摠制 閔無疾·知申事 朴錫命·右代言 李膺으로 提調를 삼았다. 內府의 銅鐵을 많이 내놓고, 또 대소 신료에게 명하여 自願해서 동철을 내어 그 용도에 이바지하게 하였다.(『태종실록』 권5, 3년(계미-1403) 2월 13일(경신))

C) 鑄字所에 술 1백 20병을 내려 주었다. 전자에 책을 찍는데 글자를 銅板에 벌여 놓고 黃蠟을 끓여 부어, 단단히 굳은 뒤에 이를 찍었기 때문에, 납이 많이 들고, 하루에 찍어 내는 것이 두어 장에 불과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이 친히 지휘하여 공조 참판 李蕝과 전 소윤 南汲으로 하여금 구리판을 다시 주조하여 글자의 모양과 꼭 맞게 만들었더니, 납을 녹여 붓지 아니하여도 글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 더 楷正하여 하루에 수십 장에서 백 장을 찍어 낼 수 있다. 임금은 그들의 일하는 수고를 생각하여 자주 술과 고기를 내려 주고, 《資治通鑑綱目》을 찍어 내라고 명령하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그 잘못된 곳을 교정하게 하였는

데, 경자년(1420) 겨울부터 임인년(1422) 겨울에 이르러 일을 끝냈다(『세종실록』 권11, 3년(1421) 3월 24일(병술)).

D)지중추원사 李蕝을 불러 의논하기를, “태종께서 처음으로 주자소를 설치하시고 큰 글자를 鑄造할 때에, 조정 신하들이 모두 이룩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태종께서는 억지로 우겨서 만들게 하여, 모든 책을 인쇄하여 중외에 널리 펴오니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냐. 다만 초창기 이므로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여, 매양 인쇄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먼저 밀[蠟]을 판(板) 밑에 펴고 그 위에 글자를 차례로 맞추어 찍는다. 그러나, 밀의 성질이 본디 柔하므로, 植字한 것이 굳지 못하여, 겨우 두어 장만 박으면 글자가 옮겨 쏠리고 많이 비뚤어져서, 곧, 따라 고르게 바로잡아야 하므로, 인쇄하는 자가 괴롭게 여겼다. 내가 이 폐단을 생각하여 일찍이 경에게 고쳐 만들기를 명하였더니, 경도 어렵게 여겼으나, 내가 강요하자, 경이 지혜를 써서 板을 만들고 鑄字를 부어 만들어서, 모두 바르고 고르며 견고하여, 비록 밀을 쓰지 아니하고 많이 박아 내어도 글자가 비뚤어지지 아니하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이제 대군들이 큰 글자로 고쳐 만들어서 책을 박아 보자고 청하나, 내가 생각하건대, 근래 北征으로 인하여 兵器를 많이 잃어서 銅鐵의 소용도 많으며, 더구나, 이제 공장들이 각처에 나뉘어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심히 번거롭고 많지마는, 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하고, 이에 이천에게 명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김현전 직제학 金墩·直殿 金鑽·호군 蔣英實·僉知司譯院事 李世衡· 舍人 鄭陟·주부 李純之 등에게 일을 주장하게 맡기고, 경연에 간직한 《孝順事實》·《爲善陰 鷲》·《논어》 등 책의 字形을 자본으로 삼아, 그 부족한 것을 晉陽大君 瑑에게 쓰도록 하고, 鑄字 20여 만 자를 만들어, 이것으로 하루의 박은 바가 40여 장에 이르니, 자체가 깨끗하고 바르며, 일하기의 쉬움이 예전에 비하여 갑절이나 되었다(『세종실록』 권65, 16년(1434, 갑인) 7월 2일(정축)).